

News

대출 규제·금리 인상에…은행 가계대출 2000억 감소

뉴스1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1,060조 7,000억원으로 전월비 2,000억원 감소… 작년 5월 이후 7개월 만에 감소 전환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 연말 상여금 유입 등 연말 효과 영향… 일시적 요인이 큰 만큼 디레버리징 등 추세적 감소세 유지는 어려울 것

기준금리 인상 유력…은행권 전세자금대출도 5% '눈앞'

뉴스1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월 정례회의… 1%에서 1.25%로 0.25%p 추가 인상 유력… 실수요자 대출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조만간 연 5% 넘어설 것으로 전망
4대 시중은행 전일 기준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 3.38~4.78%로 집계… 신규코픽스가 크게 오른 영향… 올 하반기엔 2020년 임대차3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주택 재계약 시점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하나…M&A 시계 빨라지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우리금융지주, 최근 재차 증권사 인수 의지 드러나… 손태승 회장, 12일 우리금융그룹 창립기념식에서 비은행 포트폴리오 완성 강조
향후 금리 인상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실적 감소 가능성 높은 가운데, 가장 높은 몸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점… 유안타, SK,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후보군으로 언급

'소비자금융 청산' 씨티은행 9조 신용대출에… 군침 흘리는 은행권

머니S

금융위원회,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타 은행으로 대환 희망시 대출금액 증액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총량관리는 올 7월부터 시행…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들이 대환시 2027년 이후에도 대출 만기 연장 가능하게 돼… 약 9조원 규모로 은행권에서는 자사 유입시 이자이익 확대 기대

금융당국 '자동차보험 인하' 만지작…손보사들 "10년간 9조 적자인데" 난색

데일리한국

금융당국, 이달 중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손보사들에게 전달 계획… 다음달 초 업계에서 자체 논의 후 당국과 만나 인상 여부 확정 예정
다만 당국은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자동차보험이 지난 10년간 9조원 적자 기록했기에 어렵다는 입장

생보업계, 헬스케어 신사업 진출 추진

한국경제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생보업계의 3대 핵심 과제 선정… 디지털 혁신 촉진, 신시장 개척, 소비자 신뢰 제고
향후 보험사들이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인 '마이 헬스웨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헬스케어 진출 막는 각종 규제 완화 방침도 추진

AI 핀테크 자산관리 시장 2030세대 유입돼 급성장

동아일보

AI 기반 핀테크 자산관리 시장, 2030세대 유입으로 급성장 중…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주요 AI자산관리 앱에 가입해 투자 맡기거나 자문
기존 금융사들, 로보어드바이저 등 AI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 삼성증권, 업계 최초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선보여… 다만 소비자 이해도 및 업계 기술 차이로 제도 보완 필요

역대 최고 이익 낸 증권사, 내부 투자엔 인색

대한금융신문

국내 증권사 45곳, 지난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 10조 3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1% 증가… 영업비용 지출액을 9.9% 줄인 영향 때문
그러나 작년 판관비 지출액 증가 추이에서 내부 운영 시스템 투자 명목 지출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 전산 장애 이슈 부각되는 만큼 내부 시스템 관련 투자 아끼지 말아야…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